

# IT수출 사상최대치

상반기 IT수출과 무역수지가 사상 최대치(반기 기준)를 동반 달성했다. 상반기 IT수출은 종전 최대인 '07년 하반기 702억 달러보다 26.4억 달러 많은 728.7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IT 무역수지는 '09년 하반기의 344억 달러 흑자보다 32.4억 달러 많은 37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3대 IT수출 품목 중 반도체(236.4억 달러, 99.0%)와 디스플레이패널(162.6억 달러, 47.1%)은 글로벌 경기 회복과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의 경기 부양 효과로 반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반면, 휴대폰(113.9억 달러, △20.8%)은 수출 단가 하락과 주력 스마트폰 출시 지연으로 부진했다.

### 【 IT산업 및 전체산업 수출입 실적 】

(단위 : 억 달러, %는 전년 동월대비)

구분	2010년				2009년				
	6월		상반기		6월		상반기		
수출	전체 산업	428.5	(32.4)	2,233.7	(35.6)	322.1	(△13.6)	1,647.8	(△23.0)
	IT 산업	130.4	(28.5)	728.7	(38.5)	101.5	(△11.8)	526.2	(△23.0)
수입	전체 산업	35.8	(36.9)	2,038.5	(40.2)	256.9	(△32.1)	1,453.9	(△34.2)
	IT 산업	64.0	(19.3)	352.4	(25.5)	53.7	(△16.9)	280.8	(△27.2)
무역수지	전체 산업	74.7		195.2		65.2		193.9	
	IT 산업	66.4		376.3		47.8		245.4	

국가별 수출은 미국(84.9억 달러, 6.9%), EU(89.9억 달러, 15.8%), 일본(35.5억 달러, 23.9%) 등의 선진 시장과 중국(홍콩포함, 331.2억 달러, 62.3%), 중남미(43.8억 달러, 32.1%), ASEAN(64.8억 달러, 42.5%) 등 개도국 모두 증가하였다.

특히, 2004년 이후 IT수출 대상국가 1위인 중국(홍콩 포함)은 단일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300억 달러 대 수출을 기록하며, 수출 비중이 '09년 상반기 38.8%에서 '10년 상반기 45.4%로 크게 늘었다. 중국(홍콩 포함) 수출 비중 추이(%)는 ('08.상) 36.5→('09.상) 38.8→('10.상) 45.4이다.

한편, IT수입은 전자부품(208.8억 달러, 24.2%), 컴퓨터 및 주변기기(43.9억 달러, 27.9%) 등 주요 품목의

### 【 '10년 상반기 IT산업 주요 국가/품목별 수출 】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반도체		패널		휴대폰		전체	
전체	236.4	(99.0)	162.6	(47.1)	113.9	(△20.8)	728.7	(38.5)
중국(홍콩포함)	127.4	(143.1)	100.5	(63.1)	33.7	(△19.1)	331.2	(62.3)
미국	17.6	(94.8)	4.8	(78.9)	34.5	(△25.9)	84.9	(6.9)
일본	14.7	(22.4)	4.1	(18.3)	2.9	(△7.5)	35.5	(23.9)
EU	17.1	(112.0)	25.9	(21.6)	18.1	(△31.0)	89.9	(15.8)

수입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25.5% 증가한 352.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월간 기준 수출도 호조세를 기록하였다. 6월 IT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28.5% 증가한 130.4억 달러로 지난 '07년 10월 이후 2년 8개월 만에 130억 달러 대 수출에 진입하였다. 수입은 64.0억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19.3% 증가했으며, IT수지는 66.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주요 품목별로는 반도체(43.8억 달러, 74.2%), 디스플레이 패널(28.8억 달러, 28.3%) 등 부품 수출은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휴대폰(18.7억 달러, △25.5%)은 전년 동월에 비해 감소했으나, 전략 스마트폰의 잇따른 출시로 지난 달에 비해 6.7% 증가하였다. '10.6월 스마트폰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352.4% 증가한 4.9억 달러로 잠정 집계되었다.

향후 IT수출은 상반기 성장을 주도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등의 글로벌 부족 현상이 완화에 따라 상반기 대비 증가율 둔화가 일부 예상되나, 주력 IT품목의 높아진 시장 지배력과 3D TV,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신규 IT제품 시장 성장으로 수출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상반기 부진했던 휴대폰은 국내 업체의 전략 스마트폰 출시 확대에 수출 실적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수출 회복·증가세가 계속된다면 IT수출은 '08년(1,312억 달러) 이후 연간 사상 최대치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 : 236.4억 달러 수출, 전년 동기대비 99.0% 증가

반도체는 메모리 수출 호조로 반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였다. '10년 상반기 반도체 수출은 종전 최대치인 '06년 하반기 205억 달러보다 30.9억 달러 많은 236억 달러 기록하였다.

D램(92.1억 달러, 185.8%)은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모바일 컴퓨팅 기기의 D램 탑재 비율 확대, 중국 등 신흥시장의 수요 확대로 세자리 수 수출 증가를 기록하였다.

한편, 낸드플래시는 고용량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출하 확대에 따른 수요 확대로 전년 동기대비 70.6% 증가한 13.9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지역별로 중국(홍콩 포함, 127.4억 달러, 143.1%)이 수출을 견인하는 가운데, 미국(17.6억 달러, 94.8%), EU(17.1억 달러, 112.0%), 일본(14.7억 달러, 22.4%), 등 선진 시장 수출도 증가세이다.

패널(부분품 포함) : 162.6억 달러 수출, 전년 동기 대비 47.1% 증가

패널 수출은 종전 최대치인 '08년 상반기 129.4억 달러 보다 33.3억 달러 많은 162.6억 달러로 반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패널은 동계올림픽, 월드컵 등 스포츠 이벤트 및 중국 등 신흥국 중심의 글로벌 수요 증가로 40%가 넘는 수출 호조세를 기록한 것이다. LCD 가격(TV용 Full HD, 42인치, \$)은 ('09.12)340→('10.1)340→(2)340→(3)340→(4)335→(5)335→(6)328이다.

지역별로는 중국(홍콩포함, 63.1%), 동유럽(10.3%), 브라질(392.6%) 등 주요 생산거점에서의 수출이 증가하였다.

【 패널 수출 추이 】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금액	22.4	25.0	25.5	26.3	26.6	24.9	26.3	24.6	23.3	26.4	26.4	26.8
(증감률)	(4.0)	(5.0)	(7.3)	(4.1)	(10.3)	(34.9)	(113.7)	(99.5)	(55.8)	(46.2)	(40.2)	(37.6)

휴대폰(부분품 포함) : 113.9억 달러 수출, 전년 동기 대비 20.8% 감소

휴대폰 수출은 국내 업체들의 해외 생산 비중 확대 및 수출 단가 하락과 스마트폰 지연 출시로 감소세이다. 휴대폰 수출 물가 지수 증감률(% , 한은)은 ('10.1) -25.5→(2) -23.9→(3) -20.5→(4) -20.3→(5) -17.9이다.

점차 휴대폰의 원가 경쟁력이 업체 실적으로 이어지면서 국내업체는 해외 생산 거점 확충 및 생산 비중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어 수출 물량은 감소세이다.

아울러 상반기 글로벌 휴대폰 시장 성장을 주도한 스마트폰에 대한 시장 대응이 다소 늦은 것도 수출 감소의 또 다른 요인이다. 상반기 스마트폰 수출은 국내 휴대폰 업체는 자체 모바일 플랫폼 개발 및 모바일 생태계 구축, 2분기 말 이후 본격적인 스마트폰 출시 확대로 전년 동기대비 88.3% 증가한 15.6억 달러(잠정)이다.

스마트폰 라인업이 대폭 강화되는 3분기 이후에는 스마트폰이 전체 휴대폰 수출을 견인할 전망이다.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 삼성+LG)은 ('09.1Q) 4.5→(2Q) 3.8→(3Q) 2.9→(4Q) 5.2→('10.1Q) 5.4이다.

지역별로는 미국(34.5억 달러, △25.9%), EU(18.1억 달러, △31.0%), 일본(2.9억 달러, △7.5%) 등 선진 시장 수출 및 중국(홍콩 포함, 33.7억 달러, △19.1%), 중동(3.0억 달러, △7.8%) 등 신흥시장 수출도 동반 부진하였다.

칼라 TV(부분품 포함) : 37.0억 달러 수출, 전년 동기 대비 58.2% 증가

칼라TV는 중국 TV 시장의 본격 성장기 진입, 국내 업체 주도의 3D TV, LED TV 시장 확산으로 60%에 근접한 수출 증가세이다.

국내업체는 3D TV, LED TV 등 프리미엄 제품의 지속적 출시와 주요 유통채널 마케팅 강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였다. TV시장점유율(매출기준, %)은 ('07)28.9→('08)33.8→('09)35.7→('10.1분

기)37.0이다.

LCDTV가격(42인치, \$)은('09.112) 1,007→('10.1) 1,004→(2) 957→(3) 919→(4) 1,046→(5) 960→(6) 993이다. 지역별로는 EU(63.6%), 미국(105.8%) 등 선진 시장 수출과 중국(홍콩포함, 84.2%), 멕시코(56.3%), 인도(73.7%)등 주요 생산거점 수출이 TV수출을 견인하였다.

중국(홍콩 포함) : 331.2억 달러 수출, 전년 동기 대비 62.3% 증가

중국(홍콩 포함) 수출은 반도체(127.4억 달러, 143.1%), 패널(100.5억 달러, 63.1%), TV부분품(3.8억 달러, 98.7%) 등 부(분)품이 중국 수출을 견인하며 단일 국가로는 최초로 300억 달러 대 수출을 기록(반기기준)하였다.

휴대폰(33.7억 달러, △19.1%) 및 모니터(6.2억 달러, △8.8%) 수출은 감소하였다. 종전 중국(홍콩 포함) 수출 최대는 '09.하반기 297.4억 달러이다.

【對중국(홍콩 포함)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09.6	7	8	9	10	11	12	'10.1	2	3	4	5	6	1-6
금액	41.4	46.1	46.8	51.3	51.4	50.3	51.5	52.3	46.7	57.5	57.0	58.5	59.0	331.2
(증감률)	(14.0)	(0.7)	(3.0)	(11.2)	(14.4)	(40.7)	(22.2)	(10.6)	(56.2)	(69.5)	(56.4)	(56.0)	(42.7)	(62.3)
주요 품목	32.4	36.1	36.5	40.4	38.8	38.9	41.2	42.0	36.5	45.8	45.3	46.0	45.9	261.5
(증감률)	(15.2)	(2.3)	(4.7)	(13.9)	(14.6)	(54.4)	(32.9)	(24.5)	(55.2)	(67.3)	(56.2)	(56.2)	(41.6)	(63.0)
평균	9.0	10.0	10.2	10.9	11.6	11.4	10.3	10.3	10.2	11.6	11.7	12.5	13.2	69.7
(증감률)	(13.3)	(14.4)	(10.6)	(11.9)	(13.0)	(35.4)	(87.7)	(68.2)	(60.0)	(78.6)	(57.2)	(55.6)	(46.6)	(59.9)

미국 : 84.9억 달러 수출, 전년 동기대비 6.9% 증가  
반도체(17.6억 달러, 94.8%), 패널(4.8억 달러, 78.9%) 등 전자부품과 TV(1.3억 달러, 105.8%)가 對미 수출을 견인하는 가운데, 휴대폰(34.5억 달러, △25.9%)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 수출은 확대되었다.

【對미국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09.6	7	8	9	10	11	12	'10.1	2	3	4	5	6	1-6
금액	14.0	14.5	13.0	13.3	13.6	13.6	12.3	12.1	13.2	14.3	14.7	14.9	15.7	84.9
(증감률)	(13.1)	(18.5)	(14.3)	(115.9)	(117.0)	(15.4)	(25.3)	(3.0)	(5.3)	(14.9)	(3.2)	(2.6)	(12.4)	(6.9)

모니터(1.3억 달러, 30.8%), HDD(0.6억 달러, 24.9%), 프린터(1.6억 달러, 21.4%) 등도 수출 증가세이다.

EU : 89.9억 달러 수출, 전년 동기대비 15.8% 증가  
패널(25.9억 달러, 21.6%), 반도체(17.1억 달러, 112.0%), TV부분품(9.1억 달러, 66.1%) 등 완제품 생산을 위한 부(분)품이 수출을 견인했으나, 휴대폰(18.1억 달러, △31.0%)은 부진하였다.

【對EU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09.6	7	8	9	10	11	12	'10.1	2	3	4	5	6	1-6
금액	13.8	14.3	13.1	15.5	17.9	16.9	15.1	13.2	13.7	15.6	15.4	16.0	16.0	89.9
(증감률)	(124.5)	(126.7)	(124.7)	(121.3)	(113.6)	(116.5)	(132.3)	(130.5)	(119.2)	(7.6)	(10.3)	(17.0)	(15.6)	(15.3)

일본 : 35.5억 달러 수출, 전년 동기대비 23.9% 증가  
반도체(14.7억 달러, 22.4%), 패널(4.1억 달러, 18.3%), 모니터(0.5억 달러, 31.2%), HDD(0.4억 달러, 0.2%), TV(0.4억 달러, 17.9%) 등은 증가했으나, 휴대폰(2.9억 달러, △7.5%)은 감소세이다.

【對일본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09.6	7	8	9	10	11	12	'10.1	2	3	4	5	6	1-6
금액	6.0	6.0	6.0	6.7	6.4	6.4	6.0	5.2	5.2	6.1	5.8	6.4	6.8	35.5
(증감률)	(113.3)	(119.2)	(121.1)	(13.2)	(15.4)	(20.2)	(13.6)	(33.7)	(41.4)	(45.9)	(4.3)	(19.6)	(14.2)	(23.3)

